

서울 지역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에 관한 행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최승희* · 김 명** · 김광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과 ·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목 차 〉

I. 서 론	I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Abstract

I. 서 론

적당한 음주는 긴장 완화 등의 심리적 효과 및 심장병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Klatsky, 1999; Theobald, 2000; Wannamethee, 1999) 사회적으로도 축제나 모임에서 흥을 북돋우는 수단으로, 직장이나 대학에서 결속력의 강화, 원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음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면을 가지고 있어서 과음 및 폭음으로 이어지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WHO는 1998년에 「적당한 음주」라는 말을 「덜 위험한 음주」로 바꿈으로서 그만큼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음주는 만성 간질환 및 경변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999년 인구 10만명당 11,080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5위이며 40~50대 성인남자의

사망 원인 순위 1위에 올라있다(통계청, 2000). 우리 나라의 알코올 중독의 평생 유병율은 22.0%(알코올 남용 12.06%, 알코올 중독 9.92%)로 미국 13.7%, 독일 18.0%, 대만 7.5%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정균 외, 1993).

이러한 음주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음주에 대한 정책이나 대중의 위험 의식은 아직도 대책이 없는 수준이다. 이는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것이라서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음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가정적 문제들이 단지 개인의 단순한 실수나 사생활로 치부되는 우리 나라 사회의 인식도 문제일 것이다.

이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단순한 음주 실태 조사에 국한하거나, 알코올 중독 중심의 환자 대상의 연구(유채영, 2000 등), 간질환 등 성인병과 관련한 임상 연구(배종면, 1999 등)에 치우쳐 왔다. 또한 연

구 대상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관련 음주 연구(천성수, 2000 등), 조기 예방과 청소년 보호, 선도 차원의 청소년 음주에 관한 연구(안경선, 1996 등)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무엇보다도 음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과음, 폭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집단인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심각성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량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뚜렷한 여가 생활이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없이 음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관련 연구들이 생산직 근로자에 국한되거나(김 훈, 1997 등), 40대 이후의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연구(배종면, 1999 등) 등에 머물러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여성의 음주를 비롯한 남녀 사무직 근로자 집단의 최근 음주 실태, 또 이들의 음주와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시내 남, 녀 사무직 근로자들의 음주행태 및 이와 관련 있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음주 감소를 유도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시내 남녀 사무직 근로자 520명(남자 284명, 여자 236명)을 2000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한달 동안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 소재 총

14개 기업으로 업종은 전기기계, 기계, 건설, 유통업, 은행, 증권, 보험업 등이었다. 해당 기업은 무작위로 추출되었으며 해당 기업 직원의 협조를 얻어 직원에게 설문지 입력 주의사항을 숙지토록 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게 하였다. 총 배포 설문지는 670부였으며 이 중 54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7.6%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20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크게 일반적 특성, 음주행태, 음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응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94 문항이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경제수준, 직장 내 직위, 종교 등을 포함하여 총 9 문항이다.

음주행태는 음주빈도, 음주량, 음주관련문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음주 경험, 가장 최근에 마신 술의 양 등으로 질문하였다. 음주에 관한 질문은 질문의 형태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는 보통 음주관련 연구들이 「평소에 음주를 하십니까?」 또는 「주량이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응답자들이 그 횟수나 양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Hardford, 1992). 음주량을 질문하는 데에 있어서 술 종류에 따른 다양한 알코올 도수는 표준화하여 질문하였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단위 술잔의 크기도 그만큼 작고 맥주 1잔(약 200ml)의 알코올 함량은 소주 1잔(약 40~45ml)의 알코올 함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마시는 맥주나

소주의 잔 수로 환산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음주 관련 문제는 미국 Alcohol Research Group에 의해 개발되어 1984년 National Alcohol Survey에 채택되었던 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 김광기(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항목은 41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 및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혼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두 부분을 통합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병리적인 음주의존차원의 문제를 의존적 문제라 하여 13문항, 이외에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들은 포괄하는 모든 문항들을 결과적 문제라고 하여 22문항, 결과적 문제에서 건강이나 사고 및 경제적 문제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결과적 문제의 하위 범주로 사회적 결과문제를 또 하나의 측정치로 나누어 15문항으로 하여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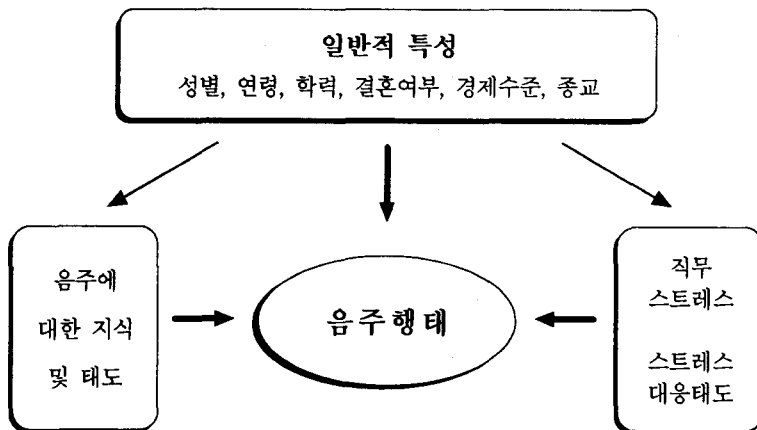
음주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은 최근 2년간 종합일간지상에서 기사화 되었던 음주 상식 및 음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관한 기사들을 검색하여 자주 오르내렸던 내용 및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들을 정리하여 만들었으며 총 10문항이다.

음주에 대한 태도 항목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음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허용적 태도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음주 효과에 거는 기대 및 음주 문화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고 총 10문항이다.

직무 스트레스 항목은 Cooper 등(1990), Greenberg 등(1995)의 연구에서 쓰였던 내용을 연구자가 번안, 편집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총 10문항이다. 스트레스 대응태도는 Folkman, Lazarus가 개발한 「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5)가 수정, 번안한 것 중에서 61문항 중 1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응방법은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대응방법인 문제 중심적 대처와 수동적이고 문제 회피적 대응방법인 정서 중심적 대처로 각 5문항씩 나누어져 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20명의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하기에 애매한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표현들을 수정하였으며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설문 문항의 Cronbach's Alpha(α) 계수는 <표 1>과



<그림 1> 연구 모형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음주량 및 음주빈도, 음주관련문제를 포함하는 음주행태이며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음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스트레스 관련 변수이다. 연구 가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표 1> 설문 문항의 신뢰도 계수

구분	문항수	Cronbach's Alpha(α)
음주관련문제	35	.8642
음주에 대한 지식	10	.6040
음주에 대한 태도	10	.6801
직무 스트레스	10	.7195
스트레스 대응태도	10	.5519

3. 자료분석방법

조사된 자료는 모두 전산 부호화하여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량 및 음주빈도, 음주관련문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빈도 및 음주량, 음주관련문제의 차이는 χ^2 -test,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응태도는 점수화 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점수의 차이, 이에 따른 음주행태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직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응태도와 음주행태와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사무직 근로자 총 520명(남자 284명, 여자 236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20대가 57.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5.4%, 40대 이상이 7.5%였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20대가 74.8%로 남자의 4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자가 298명으로 57.3%, 기혼자는 214명으로 41.2%였으며 결혼여부에서도 여성중에서는 미혼자가 75.0%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남자는 미혼자가 42.6%인데 반하여 성차를 보였다. 학력은 고졸이상이 9.9%, 전문대졸업자가 13.9%, 대졸자가 가장 많은 62.3%, 대학원 졸업자 이상이 13.9%였다. 직장 내 지위는 사원이 5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대리급이 20.6%, 과장급 이상이 23.1%였다. 한달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12.8%,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60.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2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20.2%,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6.8%였다. 종교 항목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50.1%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인이 전체의 26.5%, 천주교가 13.4%, 불교가 9.1%를 차지했다. 종교 의식에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은 14.6%였고 가끔 참여한다는 사람이 13.4%, 종교는 있지만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20.7%로 가장 많았다(표 2 참조).

<표 2> 일반적 특성

			명 (%)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전 체	284 (54.6)	236 (45.4)	520 (100.0)
연 령			
20~29세	120 (42.4)	175 (74.8)	295 (57.1)
30~39세	138 (48.8)	45 (19.2)	183 (35.4)
40세 이상	25 (8.8)	14 (6.0)	39 (7.5)
계	283 (100.0)	234 (100.0)	517 (100.0)
결혼상태			
미혼	121 (42.6)	177 (75.0)	298 (57.3)
기혼	158 (55.6)	56 (23.7)	214 (41.2)
기타	5 (1.8)	3 (1.3)	8 (1.5)
계	284 (100.0)	236 (100.0)	520 (100.0)
교육수준			
고졸	25 (8.9)	26 (11.1)	51 (9.9)
전문대졸	29 (10.3)	43 (18.3)	72 (13.9)
대졸	171 (60.6)	151 (64.3)	322 (62.3)
대학원 이상	57 (20.2)	15 (6.4)	72 (13.9)
계	282 (100.0)	235 (100.0)	517 (100.0)
직장내 지위			
사원	127 (45.0)	160 (70.2)	287 (56.3)
대리급	67 (23.8)	38 (16.7)	105 (20.6)
과장급 이상	88 (31.2)	30 (13.2)	118 (23.1)
계	282 (100.0)	228 (100.0)	510 (100.0)
월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16 (5.8)	48 (21.3)	64 (12.8)
101~200만원	161 (58.5)	140 (62.2)	301 (60.2)
201~300만원	72 (26.2)	29 (12.9)	101 (20.2)
300만원 이상	26 (9.5)	8 (3.6)	34 (6.8)
계	275 (100.0)	225 (100.0)	500 (100.0)
종교			
종교없음	152 (55.3)	106 (45.9)	258 (51.0)
기독교	66 (24.0)	68 (29.5)	134 (26.5)
불교	23 (8.4)	23 (9.9)	46 (9.1)
천주교	34 (12.3)	34 (14.7)	68 (13.4)
계	275 (100.0)	231 (100.0)	506 (100.0)
종교성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35 (12.5)	40 (17.0)	75 (14.6)
가끔 참여한다.	36 (12.8)	40 (17.0)	76 (14.7)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58 (20.6)	49 (20.9)	107 (20.7)
종교 없음.	152 (54.1)	106 (45.1)	258 (50.0)
계	281 (100.0)	235 (100.0)	516 (100.0)

2. 음주 행태

본 연구에서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상자의 96.3%가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도 대상자의 89.8%가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93.0%, 여자의 86.0%가 최근 한달 사이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표 3 참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교하면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 현 음주자라고 밝힌 사람은 남자가 83.4%, 여자가 54.9%였다. 최근 1개월 동안의 음주빈도를 알아보면 남자의 경우 최근 1개월에 3~8번 정도 음

주한다는 사람이 59.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최근 1개월 동안 1~2번 정도 음주한다는 응답자가 44.8%로 남자와 차이를 보였다. 술을 마실 때 평균적으로 마시는 음주량을 주량으로 보고 응답자들의 주량을 조사하였다. 남자의 경우 소주 1병 이상 2병 미만이 주량이라고 답한 사람이 48.1%로 가장 많았고 여자의 경우 소주 1병 미만이 주량이라고 답한 사람이 70.3%로 가장 많았다.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량과 가장 최근 마신 음주량, 한달 음주횟수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주량과 최근 마신 양, 한달 음주 횟수의 평균이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 가량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

<표 3> 성별 음주량 및 음주빈도

	남 자	여 자	전 체
연간음주율	276 (97.2)	225 (95.3)	501 (96.3)
월간음주율	264 (93.0)	203 (86.0)	467 (89.8)
최근 1개월간 음주빈도			
1~2번	44 (17.2)	90 (44.8)	134 (29.3)
3~8번	152 (59.4)	92 (45.8)	244 (53.4)
9~12번	21 (8.2)	13 (6.5)	34 (7.4)
13번 이상	39 (15.2)	6 (3.0)	45 (9.8)
계	256 (100.0)	201 (100.0)	457 (100.0)
주량			
1병 미만	81 (30.2)	149 (70.3)	230 (47.9)
1병 이상 2병 미만	129 (48.1)	51 (24.1)	180 (37.5)
2병 이상 3병 미만	44 (16.4)	9 (4.2)	53 (11.0)
3병 이상	14 (5.2)	3 (1.4)	17 (3.5)
계	268 (100.0)	212 (100.0)	480 (100.0)
최근 1개월간 총음주량			
3병 이하	85 (33.2)	153 (76.5)	238 (52.2)
3병 초과 10병 이하	93 (36.3)	32 (16.0)	125 (27.4)
10병 초과 20병 이하	47 (18.4)	13 (6.5)	60 (13.2)
20병 초과	31 (12.1)	2 (1.0)	33 (7.2)
계	256 (100.0)	200 (100.0)	456 (100.0)

* p<.05, 음주량 단위 : 355ml 소주병, 음주 빈도의 단위 : 회

다($p < 0.05$, 표 4 참조).

<표 4> 성별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차이

		Mean ± Sd.	t
주량	남자	1.2 ± 0.6	7.922*
	여자	0.7 ± 0.6	
최근 마신 양	남자	1.2 ± 0.9	9.275*
	여자	0.6 ± 0.5	
한달 음주 횟수	남자	6.4 ± 6.0	6.611*
	여자	3.4 ± 3.0	

* $p < 0.05$

음주량 단위 : 355ml 소주병, 음주 빈도의 단위 : 회

연령별로 음주행태를 알아 본 결과는 연간 음주에 있어서 20대는 95.3%, 30대는 97.8%, 40대 이상은 100%였다(표 5 참조). 월간 음주를 역시 20대는 86.1%, 30대는 94.0%, 40대는 100%의 경험율을 보였다. 최근 1개월간의 음주빈도에서도 20대에서는 최근 1개월에 1~2번 음주하는 사람이 32.8%로 가장 많았고 30대에서는 3~4번 음주하는 사람이 32.5%, 40대에서는 5~12번 음주하는 사람이 43.6%로 가장 많았다. 주량은 소주 1병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20대는 50.4%, 30대는 42.7%, 40대 이상은 51.3%로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 1개월 총 음주량을 보면

<표 5> 연령별 음주량 및 음주빈도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전 체
연간음주율	281 (95.3)	179 (97.8)	39 (100.0)	499 (96.5)
월간음주율	254 (86.1)	172 (94.0)	39 (100.0)	465 (89.9)
최근 1개월간 음주빈도				
1~2번	82 (32.8)	46 (27.7)	5 (12.8)	133 (29.2)
3~4번	77 (30.8)	54 (32.5)	11 (28.2)	142 (31.2)
5~12번	65 (26.0)	53 (31.9)	17 (43.6)	135 (29.7)
13번~20번	16 (6.4)	12 (7.3)	1 (2.5)	29 (6.4)
21번 이상	10 (4.0)	1 (0.6)	5 (12.8)	16 (3.5)
계	250 (100.0)	166 (100.0)	39 (100.0)	455 (100.0)
주량				
1병 미만	135 (50.4)	73 (42.7)	20 (51.3)	228 (47.7)
1병 이상 2병 미만	95 (35.4)	69 (40.4)	16 (41.0)	180 (37.7)
2병 이상 3병 미만	29 (10.8)	21 (12.3)	3 (7.7)	53 (11.2)
3병 이상	9 (3.4)	8 (4.7)	-	17 (3.6)
계	268 (100.0)	171 (100.0)	39 (100.0)	478 (100.0)
최근 1개월간 총음주량				
1병 이하	86 (34.5)	39 (23.5)	8 (20.5)	133 (29.3)
1병 초과 3병 이하	54 (21.7)	40 (24.1)	9 (23.1)	103 (22.7)
3병 초과 10병 이하	58 (23.3)	54 (32.5)	13 (33.3)	125 (27.5)
10병 초과 20병 이하	34 (13.7)	21 (12.7)	5 (12.8)	60 (13.2)
20병 초과	17 (6.8)	12 (7.2)	4 (10.3)	33 (7.3)
계	249 (100.0)	166 (100.0)	39 (100.0)	454 (100.0)

음주량 단위 : 355ml 소주병, 음주 빈도의 단위 : 회

20대는 1명 이하로 마신다는 사람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40대는 한달에 3명에서 10명을 마신다는 응답자가 각각 32.5%, 33.3%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주량, 최근 마신 양, 한달 음주 횟수의 평균을 ANOVA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는 주량 및 최근 마신 양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음주빈도에서는 40대 이상은 20, 30대 연령층에서보다 월등히 많은 한 달에 평균 8.2회의 음주횟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 < 0.05$, 표 6 참조).

<표 6> 연령별 음주량 및 음주 빈도의 차이

		Mean±Sd.	F
주량	20대	0.9±0.7	2.089
	30대	1.0±0.8	
	40대 이상	0.9±0.5	
최근 마신양	20대	0.9±0.8	2.640
	30대	1.0±0.9	
	40대 이상	0.8±0.6	
한달 음주 횟수	20대	4.8±5.5	7.379*
	30대	4.8±4.2	
	40대 이상	8.2±7.3	

* $p < 0.05$

음주량 단위 : 355ml 소주병, 음주 빈도의 단위 : 회

음주행태와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는 월급에 따른 음주량 및 음주빈도로 알아보았다. <표 7>은 월급에 따른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평균값을 ANOVA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평소 주량에서 미미한 차이이지만 월급이 많을수록 주량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달 음주 횟수에서 월급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 횟수가 증가하였는데 100만원 이하 소득자가 한 달에 4.1회 음주하는 것에 반하여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한 달에 7.3회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 < 0.05$).

<표 7> 월수입별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차이

		Mean±Sd.	F
주량	100만원 이하	0.8±0.5	1.650
	101~200만원	0.9±0.7	
	201~300만원	1.0±0.8	
	301만원 이상	1.1±0.8	
최근 마신양	100만원 이하	0.9±0.9	0.871
	101~200만원	0.9±0.8	
	201~300만원	0.9±0.6	
	301만원 이상	1.1±1.1	
한달 음주 횟수	100만원 이하	4.1±4.4	3.893*
	101~200만원	4.7±5.5	
	201~300만원	5.9±5.0	
	301만원 이상	7.3±6.0	

* $p < 0.05$

음주량 단위 : 355ml 소주병, 음주 빈도의 단위 : 회

종교는 인간의 행동 및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이는 역시 음주행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유무별로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주량과 최근 마신 양에서는 음주량이 모두 약 0.9병 정도로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음주 횟수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한달 평균 5.7회 음주하는 것에 반하여 종교가 있는 사람은 한달 평균 4.4회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의 음주 횟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 < 0.05$, <표 8> 참조). 또, 종교참여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종교가 있을지라도 종교의 윤리나 규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음주행태에 주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종교에 관계없이 종교 참여 정도별로 음주량

및 음주빈도를 알아보았다. <표 9>를 보면 주량과 최근 마신 양에서 모두 종교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음주량이 낮았으며 평소 주량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 < 0.05$). 음주빈도에서도 역시 종교참여정도가 낮을수록 한달 음주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 < 0.05$).

<표 8> 종교 유무별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차이

		Mean±Sd.	t
주량	종교 없음	0.9±0.7	1.049
	종교 있음	0.9±0.7	
최근 마신양	종교 없음	0.9±0.8	0.354
	종교 있음	0.8±0.7	
한달 음주 횟수	종교 없음	5.7±5.6	2.759*
	종교 있음	4.4±4.9	

* $p < 0.05$

음주량 단위 : 355ml 소주병, 음주 빈도의 단위 : 회

<표 9> 종교참여정도별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차이

		Mean±Sd.	F
주량	정기적으로 참여	0.7±0.6	3.133*
	가끔 참여	0.8±0.5	
	종교는 있지만 거의 참여하지 않음	1.0±0.8	
최근 마신양	정기적으로 참여	0.7±0.6	1.874
	가끔 참여	0.8±0.7	
	종교는 있지만 거의 참여하지 않음	1.0±1.0	
한달 음주 횟수	정기적으로 참여	3.8±4.7	3.936*
	가끔 참여	3.9±4.6	
	종교는 있지만 거의 참여하지 않음	5.2±5.0	

* $p < 0.05$

음주량 단위 : 355ml 소주병, 음주 빈도의 단위 : 회

음주관련문제는 최근 한 달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4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0>의 음주관련문제 응답자 분포를 보면 음주관련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다. 총 35문항 중에서 1~2개 경험자가 29.1%였으며 3~4개 경험자가 12.6%, 5~9개 경험자가 12.6%로 같았다. 10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3.7% 였다.

<표 10> 음주관련문제 응답자 분포

음주관련문제	명 (%)
해당 없음	195 (41.8)
1~2개 해당	136 (29.1)
3~4개 해당	59 (12.6)
5~9개 해당	59 (12.6)
10개 이상 해당	18 (3.7)
계	467 (100.0)

음주관련문제의 각 항목별 경험율을 보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항목은 「오늘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에도 다시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로 26.3%의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8.2%의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이 본인의 신체건강에 심각하게 해롭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고 「술 마실 때 일단 취기가 오르면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 생각 뿐이다」가 17.3%, 전날의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 아웃(Blackout)현상이 최근 6개월에 2번 이상 있었다는 경험자도 14.6%나 되었다. 각 문항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문제 경험 빈도만 제시할 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정도를 분류하지는 않았다 (표 11 참조).

<표 11> 음주관련문제 항목별 경험율

		구 분		명 (%)
의 존	통제 부족성 음주	오늘 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에도 다시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123 (26.3)
		술 마실 때 일단 취기가 오르면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 생각 뿐이다.		81 (17.3)
		알콜 중독자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		19 (4.1)
술 마실 생각을 하면 술 마시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9 (4.1)	
술을 줄이거나 끊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17 (3.6)	
적 문 제	증상성 음주	취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6개월에 2번 이상 있었다.		68 (14.6)
		술을 마실 때면 식사를 몇 끼 정도 거르는 편이다.		34 (7.3)
		술 마신 다음날 아침이면 손이 떨리는 적이 있다.		32 (6.9)
		술 때문에 밤에 자다가 온 몸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깬 적이 있다.		19 (4.1)
		술 마신 다음날 숙취에서 벗어나려고 해장술을 마신다.		9 (1.9)
		이전과 같은 기분을 내려면 이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8 (1.7)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술부터 마시는 적이 종종 있다.		5 (1.1)
장마성 음주	며칠동안 계속해서 술에 취하여 지낸 적이 있다.		42 (9.0)	
결 과 문 제	사회적 결 과 문 제	호전성 음주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심한 언쟁을 한 적이 있다.	49 (10.5)
			술을 마시고 싸운 적이 있다.	33 (7.1)
	가족 문 제	가족 문 제	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듣는 편이다.	65 (13.9)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편이다.	24 (5.1)
			술 때문에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4 (3.0)
			술 기운에 가족에게 폭력을 쓴적이 있다.	1 (0.2)
	친구 문 제	친구 문 제	술을 줄이라는 충고의 말을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37 (7.9)
			술이 본인의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17 (3.6)
			술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17 (3.6)
	직장 문 제	직장 문 제	직장 동료들로부터 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15 (3.2)
			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다.(또는 당하기 직전에 있다)	4 (0.9)
			술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이나 보직 발령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3 (0.6)
	법적 문 제	법적 문 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다.	29 (6.2)
			술 때문에 법을 어긴 적이 있다. (음주 운전 제외)	25 (5.4)
			술 때문에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다.	7 (1.5)
신체 건강상의 문 제	신체 건강상의 문 제	술 마시는 것이 본인의 신체적 건강에 심각하게 해롭다고 생각한다.	85 (18.2)	
		술을 줄이라는 말을 의사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15 (3.2)	
		술 때문에 약을 장기 복용한 적이 있다.	14 (3.0)	
		술을 마신 후 몸이 아파서 일주일 또는 그 이상 일상 업무를 못한 적이 있다.	6 (1.3)	
사 고	사 고	술 때문에 사고로 다친 적이 있다.	18 (3.9)	
		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부서지는 정도의 교통사고에 관련된 적이 있다.	9 (1.9)	
경제적 문 제	경제적 문 제	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41 (8.8)	

음주량 및 음주빈도와 음주관련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음주관련문제 항목별 점수와 주량, 최근 마신 양, 한달 음주 횟수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음주량이 월 등히 많았던 남자 사무직 근로자 군에서 음주관련문제도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음주량 및 음주행태와 음주관련문제의 상관분석에서도 세 가지 음주관련문제 차원과 전체 음주관련문제 모두에서 음주량 및 음주행태와 관련성이 있었으며 ($r=0.4$ 이상)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01$, 표 12 참조).

<표 12> 음주량 및 음주빈도와 음주관련문제의 관련성 (상관계수)

	주 량	최근 마신 양	한달 음주 횟수
의존적 문제	0.459*	0.443*	0.425*
결과 문제	0.410*	0.434*	0.379*
사회적 결과 문제	0.427*	0.433*	0.381*
전체 음주관련문제	0.466*	0.472*	0.429*

* $p<0.01$

3. 음주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음주행태와의 관련성

음주에 대한 지식과 음주행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주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중심으로 질문한 결과 음주에 대한 지식 문항에서 평균 정답률은 36.6%였다(표 13 참조).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한국인이 술을 매우 즐기고 음주율이 높은 것은 태생적으로 한국인에게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기 때문이다.」였으며 55.6%가 틀리다고 응답했다.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부터 마시기 시작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였는데 정답자는 전체의 18.3%에 머물렀다. 음주에 관하여 일반인에게 검증된 사실이나 올바르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 적은 편이며 따라서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음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검증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박정란(2000)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음주에 대한 지식 문항의 정답률이 26.4%로 기타 여러 가지 건강지식들과

<표 13> 음주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

문 항	정답률(%)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간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50.4
술 마신 후 사우나로 땀을 흘리고 나면 알코올이 땀으로 빠져나가 술이 빨리 깨게 된다.	52.5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부터 마시기 시작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18.3
구토를 하고 나면 아직 흡수되지 않은 술이 함께 나와서 술이 빨리 깨게 된다.	25.2
알코올은 신경 흥분제이다.	19.6
한국인이 술을 매우 즐기고 음주율이 높은 것은 태생적으로 한국인에게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기 때문이다.	55.6
음주는 수면제 역할을 하여 숙면을 돕는다.	41.2
갈증이 날 때 맥주를 마시면 갈증해소에 도움이 된다.	32.3
음주를 하면 할수록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술을 더 잘 마시게 된다.	43.7
과음은 간보다 뇌신경에 더 해롭다.	27.8
평 균 정 답 률	36.6

비교하여 점수가 가장 낮아서 이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식점수별로 음주량 및 음주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각 점수별로 의미있는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지식 점수와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관련성은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r=0.05$ 이하, $p<.05$).

음주에 대한 태도 항목은 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음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허용적 태도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음주 효과에 거는 기대 및 음주 문화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장에 동의하면 1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하였다. 각 항목별 음주에 대한 태도의 동의율은 <표 14>와 같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동의한 항목은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로 전체의 71.2%가 동의하였다.

음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역시 음주빈도나 음주량, 음주관련문제에서 여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 남자 집단에서 음주에 대한 태도 역시 훨씬

허용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태도 관련 문항에 대해 동의한 개수를 합산한 결과를 보면 남자는 평균 3.22항목, 여자는 평균 2.31항목에 대해 동의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음주에 대한 태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15 참조).

<표 15> 연령에 따른 음주에 대한 태도의 차이

	20대	30대	40대
태도 점수 (Mean±Sd.)	2.60±1.94	2.98±2.10	3.68±2.07
F=5.792*			

* $p<0.05$, 태도점수 범위 : 0점~10점

음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의 허용적인 태도가 음주행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표 16>은 음주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음주량 및 음주빈도를 ANOVA 검정으로 알아본 것인데 음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동의할수록

<표 14> 음주에 대한 태도에 대한 항목별 동의율

항 목	동의한다(%)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71.2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 술이 빠질 수 없다.	53.1
술을 못 마시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41.9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거래처와의 술자리는 필수적이다.	32.9
술을 마시면 자신감이 생겨서 대화가 쉬워진다.	28.1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16.2
술을 마시면 불안이나 근심이 사라진다.	12.1
술에 취해서 한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다.	10.4
과음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9.0
술을 마시면 성적 능력이 좋아진다.	5.6

<표 16> 태도점수별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차이

		Mean±Sd.	F
주 량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5±0.4	25.126*
	1~3개 동의한다	0.9±0.6	
	4개 이상 동의한다	1.2±0.9	
최근 마신 양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5±0.5	18.816*
	1~3개 동의한다	0.8±0.6	
	4개 이상 동의한다	1.2±1.0	
한달 음주 횟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2.0	27.174*
	1~3개 동의한다	4.5±4.8	
	4개 이상 동의한다	7.2±6.1	

*p<0.05

음주량 단위 : 355ml 소주병, 음주 빈도의 단위 : 회

<표 17>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음주 행태의 관련성(상관계수)

	음주에 대한 태도
주 량	0.360*
최근 마신 양	0.307*
한달 음주 횟수	0.308*
음주관련문제	0.419*

*p<0.01

<표 18> 항목별 직무 스트레스 정도

문	항	Mean±sd.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		1.53±0.65
나에게는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		1.67±0.79
나에게 기대되는 업무성고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1.31±0.88
회사 내에 경쟁이 치열하다		1.81±0.81
승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 *		2.00±0.88
상사 혹은 동료들과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1.65±0.91
나의 업무의 일정이나 진행방향의 결정을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89±0.96
회사 내에서 상하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79±0.83
나의 업무 성과에 따라 적절한 포상이 주어진다		2.24±0.91
나의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결정을 내 자신이 내릴 수 있다		1.64±0.89

스트레스 점수 범위 : 0점~4점, *Reverse Scale

주량과 최근 마신 양, 한달 음주 횟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05). 또 음주에 대한 태도의 총점과 음주행태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었으며(r=0.3 이상)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01, 표 17 참조).

4.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응태도와 음주행태와의 관련성

우리 나라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에 매우 익숙하며 조직 사회 내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요인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나 여가 활용, 건강 관리 방법이 없이 음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하여 정부나 직장 차원에서의 지원도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와의 관계, 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과 음주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각 항목별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다음 <표 18>과 같다. 10개의 직무 스트레스를 알아보는 항목들은 0점에서 4점까지

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 1.5점에서 2점 내외의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적절한 포상, 공평한 승진 기회의 제공 등에서는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 자각 정도를 보였다. 역시 자영업이나 전문직 등과는 달리 조직 사회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포상에 민감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모른다면 상습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음주행태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사무직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알아보았는데 두 변수 사이에는 어떠한 경향성이나 관련성이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표 19 참조).

<표 19>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관련성(상관계수)

	직무 스트레스
주 량	-0.071
최근 마신 양	-0.064
한달 음주 횟수	-0.069

스트레스 대응태도와 음주행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와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대처로 나누어 질문하고 이와 음주행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스트레스 대응태도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대처반응과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대처반응이 5문항씩 있는데 「사용하지 않음」을 0점으로 하고 「아주 많이 사용함」을 3점으로 하여 환산하였다. 긍정적인 방법일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하여 부정적, 수동적 대처 방식은 자료 변환 작업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3점으로 하고 아주 많이 사용할 때 0점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주나 흡연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2.26점), 또 혼자 있으려 한다든가(2.28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2.66점) 등의 문제 회피적 행동의 비율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표 20> 스트레스 대응태도의 항목별 점수

구	분	Mean±Sd.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한다.		1.60±0.82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2.66±0.63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1.84±0.76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2.28±0.81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1.77±0.80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 버리기를 바란다.*		1.86±0.89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한다.		1.66±0.86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기분을 전환한다.*		2.26±0.88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2.70±0.58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대화한다.		1.72±0.79

스트레스 대응태도 점수분포 : 0점~3점, *Reverse Scale

스트레스 대응태도와 음주행태 사이의 관련성은 음주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낮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대응태도와 주량 및 한달 음주 횟수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대응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를 하는 확률은 적음을 보여주었으나 그 상관도가 비교적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21 참조).

<표 21> 스트레스 대응태도와 음주량 및 음주빈도의 관련성(상관계수)

	스트레스 대응태도
주 량	-0.019
최근 마신 양	0.027
한달 음주 횟수	-0.022

I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시내 남녀 사무직 근로자들의 음주행태 및 이와 관련 있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보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시내 남녀 사무직 근로자 520명(남자 284명, 여자 236명)으로 20대가 57.1%, 30대가 35.4%, 40대가 7.5%였다. 미혼자는 57.3%, 기혼자는 41.2%였으며 학력은 대졸자가 62.3%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직위는 일반 사원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행태, 음주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음주행태와의 관련성,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행태와의 관련성, 스트레스 대응

태도와 음주행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1. 본 연구에서 최근 1년간의 음주경험은 대상자의 96.3%가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최근 1개월의 음주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상자의 89.8%가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개월 동안의 음주빈도는 남자의 경우 3~8번 정도 음주한다는 사람이 59.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1~2번 정도 음주한다는 사람이 44.8%, 3~8번 음주자는 45.8%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량 및 음주빈도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평균적으로 마시는 음주량인 주량에서는 남자, 기혼자, 종교 참여 정도가 낮은 사람일 경우에 음주량이 높았으며($p<.05$), 가장 최근에 마신 음주량에서는 남자에서 음주량이 높았다($p<.05$). 한달 음주 횟수에서는 남자, 40대 이상 연령층, 기혼자, 월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 참여 정도가 낮은 사람에서 음주빈도가 높았다($p<.05$). 음주관련문제는 최근 한 달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4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5항목에서 남자는 평균 2.61항목을 경험한 반면 여자는 1.16항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음주관련문제 경험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했다($p<.05$). 또한 음주관련문제는 의존적 문제, 결과 문제, 사회적 결과 문제 및 총 음주관련문제 모두에서 음주량 및 음주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1$).
3. 음주에 대한 지식에서 평균 정답률은 36.6%였으며 음주에 대한 지식과 음주행태 사이에는 유의미한 경향성이나 관련성이 없었다. 음주

에 대하여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가장 많이 동의한 항목은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로 전체의 71.2%가 동의하였다. 음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대하여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에서($p < .05$),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p < .05$)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음주량, 음주빈도 및 음주관련문제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으며($r = 0.3$ 이상)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1$).

4.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행태와의 관계, 또 스트레스 대응태도와 음주행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1.5점에서 2.0점 사이의(전체 범위는 0점 이상 4점 이하, 점수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 수준이었고 포상, 승진 기회의 제공 등에서는 2.0 이상의 스트레스 자각 정도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응태도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는 낮은 편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응태도와 음주량 및 음주빈도는 관계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고영석, 직무스트레스의 형성과 결과에 관한 실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광기,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제22권 1호, 1996
 김선숙,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행태에 관한 연구, 대처기술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영혜, 중년성인의 스트레스 대응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김은화, 음주와 질병 결근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훈,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업무관련 특성 및 대응 행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노인철, 서문희,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대한예방의학회, 건강통계 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1993
 박정란, 서울시내 일부 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99
 배종면, 안윤옥, 중년 남성에서 고정상혈압에 의한 고혈압 발생 위험 규명을 위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 예방의학회지 32(4), 1999
 안경선,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음주기대에 대한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 1995
 엄상화, 신해림 외, 지방간의 위험요인에 관한 단면적 연구, 예방의학회지 26(2), 1993
 오정진, 최신규, 김태호, 김용수, 오장균, 직장인의 스트레스 자각 정도와 생활습관과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제19권 제4호, 1998
 원용주, 한국의 음주 문화와 과음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미형, 최은진 외, 직장인 문제음주 예방 프로그램 예방, 보건복지부 보고서, 2000
 이원재, 알코올 소비와 음주 교통 사고,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1997
 진기남, 한동우, 직장인의 음주행태와 삶의 질, 집문당, 1998
 최은영, 임영신, 김규남, 박정용, 김현주, 조비룡, 이성희, 유태우, 허봉렬, 한국인의 음주양태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제19권 제10호, 1998
 통계청, 1999 사망원인통계연보,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국민건강영양조사, 1999

- Akihito Hagihara, Kimio Tarumi, Alan S. Miller, Fumikazu Nebeshima, Kiochi Nobutomo, Work Stressor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White Collar Workers : A Signal Detection Approach,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0
- Donald R. McCreary, Stanley W. Sadava, Stress, alcohol use and alcohol-related Problems : The influence of nagative and positive affect in two cohorts of young adul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0
- Edward S. Greenberg, Leon Grunberg, Work Alienation and Problem Alcohol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6, pp.83~102, 1995
- Harry Avis, *Drugs & Life*, Wm. C. Brown Publishers, 1990
- Howard T. Blane and Kenneth E. Leonard,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The Guilford Press, 1987
- Klatsky AL, Moderate drinking and reduced risk of heart disease., *Alcohol Res Health*; 23(1):15-23, 1999
- Lee SC, Park SJ, Ki HK, Gwon HC, Chung CS, Byun HS, Shin KJ, Shin MH, Lee WR,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silent cerebral infarction in apparently normal adults., *Hypertension*; 36(1):73-7, 2000
- Lindeman RD, Romero LJ, Allen AS, Liang HC, Baumgartner RN, Koehler KM, Garry PJ., Alcohol consump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New Mexico Elder Health Survey., *J Am Geriatr Soc.*, 1999
- Loguercio C. et al., Drinking Habits of Subjects with Hepattitis C virus-related Chronic Liver Disease : Prevalence and effect on Clinical, vir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Alcohol*, 2000
- M. Lynne Cooper, M. Russell, M. R. Frone, Work stress and alcohol effects : A test of stress-induced drink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1 260-276, 1990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Home Page <http://www.nida.nih.gov>
- Richard S. Lazarus, Susan Folkman, 김정희 譯,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Stress, Appraisal and Coping), 대광문화사, 1991
- Robert H. Coombs, *Handbook on Drug Abuse Prevention -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the Abuse of Alcohol and Other Drugs.*, Allyn & Bacon, 1995
- Theobald H., Bygren LO, Carstensen J. Engfeldt P. A Moderate Intake of Wine is Assoated with Reduced Mortality from Cardiovascular Disease, *Journal of Studies of Alcohol*, 2000

<ABSTRACT>

Drinking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White Collar Workers in Seoul

Seung-Hee Choi* · Myung Kim** · Kwang-Kee Kim***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drinking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white collar workers in seoul. Examination was executed with questionnaire to 520 white collar workers. Drinking behavior involves frequency of drinking,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in a drinking situation and alcohol-related problem. Related factors involv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knowledge about alcohol, the allowable attitude about drinking, work stress and stress copying. This was analyzed with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Data shows that about 96.3% of the respondents drink at least during the last year and 89.8% of the respondents drink at least during the last month. 59.4% male respondents drink 3~8 times a month, 44.8% female respondents drink 1~2 times a month. High prevalence rates were found in male, married person and those with low-religious spirit in a usual amount of drinking($p<0.05$), male in the latest amount of drinking($p<0.05$), male, forties, married person and those with the highest monthly family income and those with low-religious spirit in frequency of drinking during the latest month($p<0.05$). The score of alcohol-related problem(ARP) was as follows : male workers-2.61, female workers-1.61 out of 35. The score of AR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p<0.05$).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amount of drinking, frequency of drinking and ARP($p<0.01$).

The score of knowledge about alcohol was 3.6 and any correlation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ere not observed between the knowledge about alcohol and drinking behavior. The score of allowable attitude about drink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p<0.05$), age($p<0.05$).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attitude about drinking and amount of drinking, frequency of drinking, ARP($p<0.01$). The work stress and stress copying had no significant relations with drinking behavior. Most respondents do not drink at stress situation.

Key Words : Drinking Behavior, White Collar Workers